

보도

고가의 교재비 부담, 불법 복제 주요 원인 되기도

교재비에 부담 느끼는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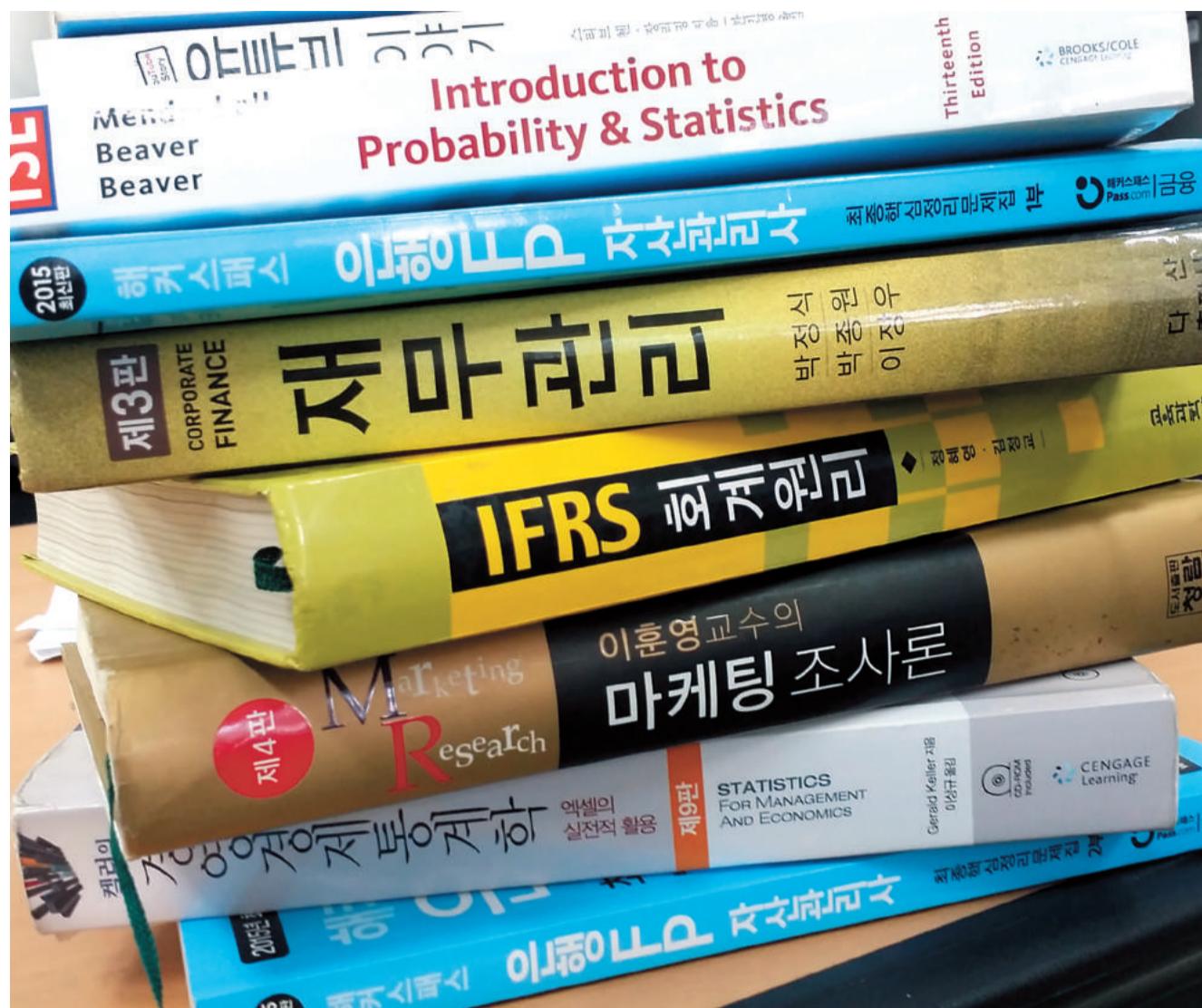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이다정(철학 2014)양은 새 학기를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다. 수업교재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 학기에 15만 원 가량을 교재비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양은 '주말 알바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는 나로서는 교재비 지출이 부담스럽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양의 사례처럼, 학생들이 학기 초에 드는 교재구입비가 만만치 않아 고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신문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학교 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재구입비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0%(69명)이 '부담스럽다'에, 40%(55명)가 '매우 부담스럽다'에 답해 총 90%가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구입해도 활용도 떨어져

'아깝다' 느끼는 학생 많아



학생들은 왜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 일까. 한 학기에 학생들이 대체로 6개의 과목을 수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강 후 첫 달에 6권 내외의 책을 구입해야 하는 셈인데, 전공서적이나 원서의 가격은 3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서관에서 교재를 대여하기에는 '한정된 수량과 대여기간'이라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학기 수업교재 구입을 위해 총 얼마를 지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10만원 이상~15만원 이하'에 답한 응답자가 44%(59명)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 49%(67명)가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에 답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교재비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고 교재를 구입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재 활용도가 낮은 수업은 교재를 사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교재비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주관형 질문에서 '교수가 교재를 필수적으로 지침이라고 해서 구입했지만 실제 수업은 PPT 위주로 진행되는 경

우, 한 학기 동안 교재의 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자주 일어나니까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다른 응답자는 '교수가 자신의 저서를 교재로 선정해 구입하도록 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사실상 강매와 다를 바가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다른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바로 무단 제본이다. 교재비를 아끼기 위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제본하거나, 여러 명이 책 한 권을 구매해 무단으로 제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단 제본은 저작권법상 불법행위지만, 매번 개강 철이면 학교 근처 복사전문점은 제본을 하려는 사람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동안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복사전문점에서 적발된 불법제본 건수는 61건에 달한다. 실제로 '수업 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제본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5%(104명)가 '있다'고 답

했다. 제본 교재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책값이 비싸서'에 답한 응답자가 65%(72명)로 가장 많았다.

대학가에서는 중고서적 거래가 이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는 이번 학기에 중고 전공서적을 시중가격 대비 40~70%에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열었다. 고려대학교 종합대학 학생회는 '별자취' 사이트를 통해 중고 교재의 판매, 구매를 중개하고 있다. 판매자는 사이트와 연결된 구글독스에 판매하려는 교재를 등록하고, 구매자는 온라인 교재 리스트 중 구매하려는 교재를 선택해 운영사무국에 연락하는 방식이다. 고려대학교 종학생회 측은 "학우 여러분의 생활 복지 개선을 위해, 특히 교재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지난 3월 한 달간 약 100권 이상의 교재가 거래되어 뿐만 아니라 학우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중고서적 거래도 활발하다. 연세대학교 커뮤니티인 '세연넷'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는 새 학기면 전공, 교양교재 거래 글이 쏟아진다. 실제로 '고파스'에서 중고 교재를 구입해본 적이 있다는 정유선(고려대)양은 "개강 철에는 교재 거래 글이 엄청 많이 올라온다"며 "책이 많이 올라오니까 원하는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중고서적 거래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타 대학의 사례처럼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활성화된 중고서적 거래 관련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활발하게 이용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없어서 지인에게 책을 물려받지 않는 한 중고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게다가 중학교, 글쓰기, 시민교육 교재의 경우는 매년 개정판이 나오기 때문에 중고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종학생회 측은 "우리도 교재장을 개최했던 적이 있지만 교재가 많이 모이지 않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중학교 교재의 반값쿠폰을 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물론 교재구입비가 그렇게 아까워해야 할 부분이나는 시선도 있다.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교재는 어쨌든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재를 필수로 지침하게 하는 한 교수는 이에 대해 "총 없이 전장에 갈 수 없는 법이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책 없이는 학문의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없다"며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다른 데 쓸 돈을 아끼고 미리 돈을 저축해두면 충분히 교재비를 충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응답자는 '술 마실 돈은 있고, 책 살 돈은 없다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교재사용의 목적이 '구입'이 아닌 '保姆'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금전 부담에서 벗어나 교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공감한 대학가의 교수들이 모여 진행하고 있는 '빅북(Big Book)'운동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본은 저작권법상 불법
빅북운동 대안으로 떠올라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저자가 지적 저작권을 공유해 무료로 교재를 보급하는 운동이다. 주로 '경제학원론', '통계학개론' 등의 기초교재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PDF파일을 내려 받는 방식이다. 원하는 경우 제본하여 사용해도 저자가 지적 저작권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운동을 주도한 빅북운동본부의 대표 조영복 교수(부산대학교 경영학과)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대학의 지식창조 활동의 결과물들은 이를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비롯한 많은 결집들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빅북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식은 공유될수록 혁신적 창조의 힘을 얻는다. 대학에서 지식 공유의 첫 걸음은 학생들이 책을 '부담스럽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테다. 도서관이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교재로 사용되는 책을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구비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빅북운동'과 같은 대안을 모색한다면 지식 창조가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16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충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토요일 강의 개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교차수강 가능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6. 4. 18(월) ~ 5. 6(금) 17:00
• 전형 일 : 2016. 5. 7(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nu.ac.kr)

● 전형료 : 전형료 면제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출입(예정)증명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n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학년도 2학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박사 과정

1. 모집 분야 : 국제통상학영화학과 / 국제개발학영역학과 / 국제경영학과

2. 모집 인원 : 석사과정 90명

박사과정 00명 (국제개발학영역학과 포함)

3.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4. 전형방법

국내거주자 : 저작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경이학문분석(20%)

해외거주자 : 저작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자 저작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여, 일자는 별도 통지

5. 전형 일정

서류접수 : 2016년 04월 18일(월) ~ 05월 11일(수) 17:00 (우편 소인기준)

국내 거주자 : 인터뷰 및 영어준비면접 : 2016년 05월 21일(토) 시간 추후공지

해외 거주자 : 인터뷰 : 2016년 05월 18일(수) ~ 05월 20일(금) 기간 중 개별면접 (예정)

합격자 발표 : 2016년 05월 30일 월요일 예정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접수) 시험원, 서류(40%), 경이학문분석(20%)

• 경학전공자 : 입학원서 접수 및 경영학전공자 : 입학원서 접수 및 경영학분석(20%)

• 출생증명서 : 1부 (국문본, 영문본 및 복사본)

• 출생증명서 : 1부 (국문본, 영문본 및 복사본)